이긴자 일대기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46회〉

너희들, 믿으려면 조 중위만큼만 믿어!

7) 마귀 취급받으면서 자존심을 죽이는 연단

9절: 감사하는 생활
1) 11년의 군생활 마감과 점점 가혹해지는 연단
2) 사업을 시작하다
3) 이끄심을 받으며 은혜를 숨기는 생활
4) 영의 흐름을 깨닫다
5) 육적으로도 당할 자가 없어
6) 생활 전반이 신앙으로 매진

(지난호에 이어서)

일곱째 천사가 영등포 당산동 지관에 다녔을 때 나중에 소사 신앙촌 천부장이 되었던 한00 권사를 전도하였는데 그 아들 김00도 군입대 할 때 일곱째 천사 조 중위가 카츄사로 주선해 주었으며, 의사인 남편 김 선생이 영등포에서 고려 엑스레이병원 원장으로 있을 때 일곱째 천사가 피의 원리를 논하며 전도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그 한00 권사는 소사 신앙공동체마을 'C 5동 4호실'에 있는 일곱째 천사의 집을 찾아와 "천부장 권한으로 명하니 조 중위 마귀는 나가라."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는 끝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너무 심하게 행패를 부리기에 일곱째 천사가 참다못해 한00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그럼, 너의 남편도 내가 여기서 나가기를 원하는지 한번 가서 물어 봐야겠다."고 하니, 한00 천부장은 얼굴색이 변하더니 "제발 남편한테 가서 말하지 말라." 하면서 쩔쩔매는 것이었습니다. 한 천부장의 남편이 이렇게 핍박한 일에 대해서 알게 되면 부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히 내다보기에, 일곱째 천사는 입을 열지 아니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넘어 갔던 것입니다.

언젠가 조성옥 전도사가 논산 연무대제단에 있었을 때인데 전도가 안 된다 하여 일곱째 천사에게 대신 단에 서 달라고 하므로 일곱째 천사가 몇 번 단에 서게 되니 은혜창파가 되고 부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옥 전도사가 하나님의 깊은 사정도 모르고 영모님께 가서 "조 중위 전도사를 다른 사람들은 마귀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마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단에 서게 허락해 주십시오." 한 바 있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 한 번은 몇몇 전도사들이 영모님께 "조중위를 상대해도 되겠습니까?"하고 여쭌 적이 있었는데 영모님은 "너희들, 믿으려면 조 중위만큼만 믿어!" 그리고 "이 소리 조 중위한테 가서 하지 마! 이 말을 전하면 조 중위를 죽이는 거야. 조 중위가 교만해질 수 있어." 하신 바 있다고 그 소리를 조성옥 전도사가 일곱째 천사한테 와서 전해 준 일도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 외에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이긴자가 되기 전에 수십 년간 마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귀라고 하면서 아무도 일곱째 천사를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침을 뱉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사귀었지 신앙이 없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존심이나 내세우는 마귀새끼와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죄에 오염되어 자신도 같이 마귀가 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에도 '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 고 했던 것입니다.

노구산(露求山, 격암유록에는 老姑山이라고 한다) 정상에 있는 오만제단

〈9절〉

감사하는 생활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주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항상 이끌어주시고 동행해주셨던 것입니다. 일 년 이 년이 아니요 삼십 년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동행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긴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완성의 이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그만 은혜를 받았을 때도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감사한 생활이 완성의 이긴자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1) 11년의 군생활 마감과 점점 가혹해지는 연단

군에서는 지휘관이 예하 장병들의 근무평정표에 점수를 매기고 의견을 적기도 하는데, 일곱째 천사는 육군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몇 번 제대원서를 적어 내어도 제대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육군본부 부관참모부에 근무하는 동기생에게 물어보고서야 알게 되어서, 일곱째 천사는 편법을 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전에 일곱째 천사가 영모님으로부터 꿈 안찰을 받기 전에는 밤낮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몸이 쇠약해져 폐결핵에 걸리었는데 꿈 안찰을 받고 나서 그것이 깨끗하게 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엑스레이(X-RAY)를 찍어보면 그 부분이 희끗하게 찍혀 나오므로 그것을 잘 아는 같은 군 동기생이 되는 군의관에게 보여주면서 부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11년간의 군대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한 군대의 상관에 대한 복종심과 충성심 그리고 불굴의 정신력을 일곱째 천사에게 심어주기 위해 연단의 장소로 활용하셨기 때문입니다.

1963년 7월 31일, 일곱째 천사는 장교생활 11년 만에 육군중위로 제대 한 뒤, 열두 부양가족을 데리고 소사 신앙촌(신앙공동체마을)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제대할 때 받은 퇴직금을 사기꾼에게 몽땅 사기를 당했는데 그러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가진 돈이 떨어져 가족들이 굶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곱째 천사는 장사라도 해 보려고 신앙공동체마을 내에 있는 공장을 찾아가 물건을 대주면 장사를 해 보겠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는 조 중위 마귀가 왔다고 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떠미는 등 상대조차 하지 않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공장으로 갔으나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 같은 마귀한테 물건을 대주었다가는 마귀로 찍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당신이 있으면 재수 없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어디에도 발 붙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매 맞은 자리를 손으로 비벼서 푸른 자국을 없앤 뒤에야 집에 들어갔다

또한 예배에 참석하려고 오만제단에 올라가면 안내원들이 "마귀가 왔다." 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주먹으로 귀퉁이를 쥐어박거나 매를 때려 푸른 멍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이런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루라도 예배를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고로 감람산(일명 露求山) 산정상에 있는 오만제단을 향해서 올라가면 마귀새끼가 온다고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일곱째 천사를 붙잡고 으슥한 소나무 숲속에 끌고 가서는 모포를 뒤집어씌우고 발길질을 하고 개 패듯 하였습니다. 웬만한 사람이었다면 뼈마디가 부러졌거나 골병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대신 맞아주시고 보호하신 까닭에 하루 밤만 자고나면 씻은 듯이 아픈 곳이 나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 이야기를 가족들에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동생들이 눈치를 채고 혹 신앙촌(신앙공동체마을) 밖으로 나가버릴까 봐 매를 맞아도 매 맞은 표시를 내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은 날이면 매 맞은 자리를 손으로 비벼서 푸른 자국을 없앤 뒤에야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번 해가 진 후에야 집에 들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일곱째 천사는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웃으면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안내원이 제단 현관문에 지켜 서서 마귀라고 예배를 못 보게 하기에, 영모님 설교 말씀을 멀리 숲에서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소리로만 들어야 했고 그토록 보고 싶은 영모님 얼굴을 뵙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예배 인도차 오만제단에 올라가실 때의 차에 타신 모습만을 볼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다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라도 뵈올 수 있을 때는 너무너무 감개무량하고, 반갑고 고마운고로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곤 했습니다.

또 영모님이 단상에서 예배를 마치고 승용차로 내려가실 때에 일곱째 천사는 급히 달음질쳐서는 도로변에 서서 영모님께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구슬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때는 영모님께서 차를 잠깐 멈추신 뒤, 일곱째 천사에게 "요즘은 어떻게 지내? 하는 사업은 잘돼?" 하시며 물어 보시곤 했는데 영모님께서 일곱째 천사의 눈물을 보시면서 당신께서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가시곤 했습니다.

영모님이 차 안에서 일곱째 천사한테 안부를 묻는 모습을 목격한 신앙촌 사람들 몇몇은 그 다음부터 일곱째 천사를 마귀라고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수많은 신앙촌 신자 가운데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新金剛經解說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23〉

▣ 대반열반경 16권(大般涅槃經)
범행품(梵行品) 第20-3

善男子 諸佛如來祕密之藏 亦復如是
선남자 제불여래비밀지장 역부여시
爲未來世諸惡比丘畜不淨物
위미래세제악비구축불정물
爲四衆說 如來畢竟入於涅槃
위사중설 여래필경입어열반
讀誦世典 不敬佛經 如是等惡現於世時
독송세전 불경불경 여시등악현어세시
如來爲欲滅是諸惡 令得遠離邪命利養
여래위욕멸시제악 영득원이사명이양
如來則爲演說是經
여래즉위연설시경
若是經典祕密之藏不現時 當知爾時佛法則滅
약시경전비밀지장불현시 당지이시불법즉멸

선남자여, 부처님이 비밀한 법을 감춘 것도 그와 같아서 말세의 모든 나쁜 비구들이 부정한 물건을 쌓아 두고, 사부 대중에게 여래(석존)가 열반에 들어간 것을 필경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 경전만 읽고 부처님(석존)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나쁜 일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 여래(석존)가 이런 나쁜 일을 없애고 잘못 생활하는 습관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여래(석존)가 이 경을 연설하는 것이다. 만일 비밀리 감춘 이 경전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는 부처님 법도 없어지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해설] 이같이 석존께서 분명하게 석존은 열반(涅槃)을 이루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사부 대중에게 말씀하시며, 말세인 지금의 스님들이 세상살이에 관심만 있지 실제 도를 닦고 법을 구하는 진실한 모습은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성불하지 못해서 열반에 들지 못한 석존을 성불했다는 뜻의 열반을 죽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바른 법을 알려 줘도 이런 사실을 깨려고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염려하여 사부 대중에게 간곡한 말씀으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불교를 책임지고 있는 스님들이 먼저 자기의 스승이라고 하는 석존의 경전을 읽지도 않고, 오히려 경전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다면 이얼마나 한탄스런 일입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석존이 부처가 아니었다면 우리들의 선대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불교를 과연 믿었을까요? 또 지금이라도 석존이 참부처님이 아니고 성문과 연각인 벽지불이라고 한다면 과연 몇몇 사람이나 스님과 절에 경배를 할까요?

불도를 닦는다고 하는 스님들께 저는 이런 말씀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발 진실을 밝히고, 또한 국비를 탕진해 가면서 불교의 한역 경전을 우리 글로 바꾸면서 제발 경전 조작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과 잘못은 속히 뉘우치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스려서 법신불인 미륵부처님께 나아가 참다운 수행을 권하고 싶습니다.

동국 대학교 역경원이 발행한 열반경 해석본은 미륵불에 해당되는 구절을 임의적으로 석가모니에게 맞추어 해석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후반부에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 第十三

불법(佛法)이란 진리(眞理)를 구현하는 것이다. 진리란 단순 명료하면서도 불변(不變)의 원칙을 함께해야 진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면 이는 분명하게 불변이 아닌 변화(變化)인 것이다. 그러므로 미륵여래(彌勒如來)는 사람이 죽지 않는 불로불사(不老不死)의 학문(學文)을 불법(佛法)의 근본(根本)이라고 한다.

법다운 것을 받아 지녀라_(1)

爾時 須菩提白佛言
이시 수보리백불언
世尊 當何名此經 我等云何奉持
세존 당하명차경 아등운하봉지
佛告須菩提
불고수보리
是經名爲金剛般若波羅蜜 以是名字 汝當奉持
시경명위금강반야바라밀 이시명자 여당봉지
所以者何 須菩提
소이자하 수보리
佛說般若波羅蜜 則非般若波羅蜜
불설반야바라밀 즉비반야바라밀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오되,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뭐라고 이름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니오리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金剛般若波羅蜜)이니 이 이름으로서 너희들은 마땅히 받들어 지니라. 무엇 때문이겠느냐? 수보리야, 여래(석존)가 설한 반야바라밀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석] 이 금강경의 이름이 정해지는 구절인데 여기서도 석존은 수보리가 지금 말씀하신 법문의 이름을 묻자 석존은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석존은 자신이 부처가 아니므로 금강과 같은 지혜가 있는 말씀의 경전은 아니지만, 미래세의 중생들을 위해 진실을 알게 하기 위해 방편으로서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금강과 같이 견고하고 날카로운 지혜로써 실상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금강경이라고 본래 이름을 붙인 것은 이 경을 보시는 독자들께서 석존이 제자인 수보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사실을 말씀하시만 대중들이 믿지 않을 것을 석존은 염려하여 직설화법을 사용하면서 그래도 대중들이 믿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처음에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http://www.linkingbooks.com.tw/lnb/top/2018/9789570850260_en.html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所說法不
수보리 어의운하 여래유소설법부
須菩提白佛言 世尊 如來無所說
수보리백불언 세존 여래무소설

수보리야, 너의 생각에는 어떠느냐? 여래(석존)가 (성불하는 무위의) 법을 말씀한 바가 있다고 하느냐? 아니냐? 수보리가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여래(석존)께서 (법)을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해석] 여기서 마찬가지로 석존은 성불의 무위법을 말한 적이 있는가 하고 제자인 수보리에게 묻지만 성불의 무위법이 없는 석존을 수보리가 분별하여 알고 있으므로 유위법은 말씀했지만 성불의 무위법은 말씀한 적이 없다고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須菩提 於意云何
수보리 어의운하
三千大千世界所有微塵 是爲多不
삼천대천세계소유미진 시위다부
須菩提言 甚多 世尊
수보리언 심다 세존
須菩提 諸微塵如來說非微塵 是名微塵
수보리 제미진여래설비미진 시명미진
如來說世界非世界 是名世界
여래설세계비세계 시명세계

수보리야, 너의 생각에는 어떠느냐?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티끌을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오되,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티끌은 여래(석존)가 티끌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을, 이를 티끌이라고 부르며 여래(석존)가 말씀한 세계도 세계가 아닌 것을 이를 세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明鍾